

원로와의 대담

식물사랑 60년

李昌福 박사

대담 / 李光榮
〈한국일보 부국장 / 과학평론가〉

우리나라 수목학과 식물분류학 분야의 기초를 다진 李昌福박사는 요즘 15년 전에 펴낸 대작 「대한식물도감」을 원색으로 다시 펴내기 위해 마무리작업에 여념이 없다. 1919년 평안도 맹산에서 태어난 이박사는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관악수목원 조성에 앞장섰으며 평생 모은 10만여점의 식물표본을 서울대에 기증했고 정년 후엔 자생식물연구회를 설립하여 팔순을 바라보는 노령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박사님의 함자는 식물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도 나이드신 분들은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임학을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어린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부친 이병준(李炳俊)씨와 모친 김관보(金寬寶)씨의 3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자작농을 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부친은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화심총을 가지고 직접 일본군에 대항한 분이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부모에 효도하고 몸을 삼가라(忠清孝謹)'는 우리 집안의 가훈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여섯살 무렵 맹산에서 1백여리 떨어진 산골 횡천(橫川)으로 데리고 들어가 서당에 넣었어요. 그 곳에서 열두살까

지 한문을 익혔는데 사서(四書)중 맹자(孟子)까지 뗐지요.

12살까지 서당서 한문공부

하지만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서당이 폐쇄됐고 학생들은 강제로 소학교에 배당되는 바람에 횡천국민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2년 후 고향으로 돌아와 맹산국교를 열여섯살에 졸업했지요. 중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친이 강력히 반대했어요.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잔병은 없었으나 체질이 허약했어요. 4학년때 장티프스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요. 마음을 고쳐 먹고 모친의 허락만 받고 평양공립농업학교에 응시했는데 합격했어요. 부친은 뒤늦게 알고 야단을 치셨습니

다. 고향에서 국민학교 선생을 한다면 모르되 농사지을 사람이 공부는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농업학교를 나와도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서 열여덟이 되던 해 중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학이기도 했지만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어 열심히 했지요. 덕분에 졸곧 1등을 했습니다. 임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3학년때 부터입니다.

당시 학생복은 검정색이었는데 일본은 이를 군인복장과 같이 누런 국방색으로 바꾸게 했어요. 전교생이 들고 일어나 이를 반대했어요. 나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던 횡천으로 가 숨어 지냈어요. 이때 산림주사의 위세와 횡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못된 산림주사를 혼내주기 위해 임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평양농림학교 시절 담임과 교장을 지내신 이성현(李晟鉉) 선생님의 영향도 컸어요. 선생님은 당시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로 계셨던 이름난 일본 수목학자인 우에기(植木秀靜)박사의 수제자이셨는데 이분의 권유로 수원고농 임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후 모교에서 교편(敎諭·1944년)을 잡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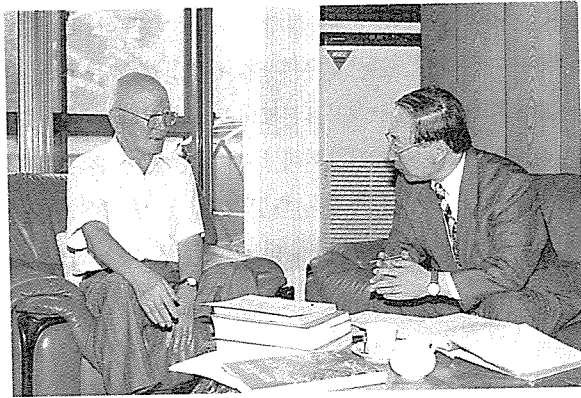
■ 평양공립농업학교 시절 학교상황은 어떠했습니까.

3·8선 넘어 서울대 농대교수로

평양공립농업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일도 사연이 많습니다. 수원고농을 졸업한 후 실은 관리양성소인 만주 대동학원으로 가려했어. 그러나 모교의 교사요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졸업하자 곧 발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패망하자 소련군이 곧 진주해서 학교를 접수, 교과과정을 개편했어요. 이때 나는 한문을 가르치게 되었지요. 이 무렵 수원고농에서 사람이 왔어요. 해방이 되어 수원고농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는데 수목학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처음 망설였습니다. 평양농업학교 교장이 나의 은사이신 이성현 선생님이신데다 말만 듣고 선뜻 따라나서기가 수월치 않았지요. 얼마 후 수원으로부터 다시 사람이 왔어요. 총각이어서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의 현실도 알아볼겸해서 10월경 그분을 따라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게 되었고 1945년 11월 6일 수원농림전문학교 조교수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평양농업학교에 아무 말없이



▲이창복박사(좌)는 한반도의 자생식물이 종류도 다양하고 아름답지만 이중 일부가 멸종위기에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내려 왔기 때문에 11월 말 종강이 되자 곧 평양으로 갔지요. 학교에 가니 야단들이었어요. 누가 선동해서 나를 학교에서 쫓아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 일로 해서 은사인 교장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농성하는 선생과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누구의 모함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나는 이때 지금의 아내(文有感·74)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임강사로 발령됐으니 곧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약혼서약을 지니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그해 겨울 3·8선을 넘었지요. 이 무렵 북한은 3·8선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3·8선을 넘다가 짐꾼이 약혼서약서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북으로 다시 올라가 소련군 진영을 찾아 갔지요. 약혼서약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신분을 밝히고 중요한 책보따리이니 찾아야한다고 호통을 쳤더니 사람들을 풀어 짐을 찾아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통했어요. 1946년 3월 결혼하기 위해 다시 북으로 갔습니다. 3월 21일 결혼을 하

고 다시 남으로 내려오려 하니 3·8선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해 4월 진남포에서 밀선을 타고 마포로 왔습니다.

■ 당시 서울대 농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6.25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조백현(趙伯顯·화학)교수와 지역린(池泳麟·전작)교수가 일제시대 때부터 계셨고 심종섭(沈鍾燮·임산가공)교수와 현신규(玄信圭·임학)교수가 영입되어 오셨어요. 해방후 사상논쟁이 심했던 혼란기가 있었으나 6.25 직전에는 학사가 안정이 되었어요.

6.25때 식물표본 3만점 분실

그러나 6.25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우리 가족은 6.25가 나자 걸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 부두노동자로 취직했는데 그 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어요. 나는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지요. 하루는 헌병대 책임자가 나를 부두 가장자리로 끌고 가더니 총을 빼들고 바른대로 말하라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나를 간첩으로 문 것이었어요. 그래서 헌옷 속에 감춰뒀던 교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그랬더니 경례를 각듯이 붙이며 서울대 법대 졸업생인데 선생님을 몰라보았다며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다음날부터 부두감독이 되었어요. 이때 이승녕(李崇寧)교수도 부두감독일을 보고 계신 것을 알

게 되었어요. 9.28 수복후 학교에 가 보니 말이 아니었지요. 그중에서도 광복후 서울대 농대에 있으면서 땀흘려 모아놓은 3만점에 달하는 각종 식물표본들이 모두 불타 없어진 것이 나에겐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 선생님은 임학과 식물분류학에 남다른 집념을 가지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60년을 전국 방방곡곡 산과 들을 찾아 각종 풀과 나무의 분포상태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정년퇴임때 평생모은 표본 기증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4천1백64종인데 1천1백78종이 나무이지요. 이중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4백7종으로 남한에 2백24종, 북한에 1백7종, 남북한에 걸쳐 있는 것이 76종입니다. 4백7종중 아직도 1백여종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실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중 내가 발견해서 학명을 붙인 것이 30여종 될 것입니다. 특히 한대(寒帶)와 난대(暖帶)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자생식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아름답지만 이중 일부는 멸종위기에 있어 안타깝습니다.

식물표본은 1952년부터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1984년 서울대를 정년으로 떠날 때까지 10만점을 모아 농대에 기증했어요. 이 식물표본 가운데는 1902년 프랑스 신부 타게트와 퍼리가 채집한 제주도 식물과 도쿄(東京)대 식물학자였던 고 나카기(中井猛之進)교수가 가지고 있던 식물이 포함돼 있어요. 식물채집만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산교육은 없지요. 교과서만 가지고 자연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히 해도 실제 식물을 보면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중학교에 식물표본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중학교 교재에 등장하는 식물표본 1백50여개 가운데 1백개를 골라 표본을 만들어 7백개 학교에 7만점을 무료로 보냈어요. 자연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며 여러 곳에서 고마워하더군요. 계속 보내려 했으나 재료비 마련이 어려워 문교부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한마디로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결국 이 일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 박사님은 서울대 농대의 식물표본관에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관악수목원(樹木園)을 직접 만들고 집념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초 국제회의를 나가보고 나무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수목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도 하고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필요성을 역설했지요. 학교 당국과 협의가 되어 정식수목원을 발족시킨 것이 1971년의 일입니다.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학교림 5백만평을 수목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재임중 관악수목원 조성 흐름

그중 2백20만평에 각종 나무종자를 채집해다 심었습니다. 지금 약 2천종 가량이 자라고 있어요. 5.16 이후엔 관악산 90만평이 감쪽같이 개인 소유로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를 들춰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 되찾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971년 홍종철문교부장관 시절 대학설치기준령에 결재를 받아 대통령령 제5666호로 일을 벌인지 10년만에 서울대 수목원이 탄생했지요.

■ 후학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국립식물원이 없어요. 식물원은 멸종위기에 직면한 식물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보호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멸종돼 가는 식물자원을 보존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루 속히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국립식물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후학도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연과 나무의 실체를 알아야만 사랑이 우러납니다. 자연이란 인간의 눈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땅의 주인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태초에 있었던 식물의 10% 정도가 멸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식물의 40% 정도가 훼손된다면 인류도 멸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학자로서의 보람이 있다면 1970년부터 종자목록을 격년제로 발행해서 외국과 종자교환을 한 것과 「대한식물도감」을 비롯해서 「한국수목도감」·「야생식물도감」·「야생약용식물도감」·「초(草)자원도감」을 비롯 「식물분류학」·「수목학」 등 전문서적에서 「성서식물」 등 다수의 일반인을 위한 책을 펴냈으며 1백여편에 달하는 논문을 남긴 것이라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을 지도한 이박사는 「겨울의 낙엽수 식별」이란 일반대중을 위한 책을 탈고 곧 출간할 예정이다. 한국식물분류학회회장(75년)을 역임한 이박사는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으로 한국임학회장(63년)·대한민국 과학기술상(68년)·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82년)·국민훈장 모란장(84년) 등을 받았다. 한국가톨릭평신도사도직 중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이박사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67